

海外僑胞의 北韓訪問 實際와 教訓

1991. 2.

統一院

海外僑胞의 北韓訪問 實際와 教訓

1991. 2.

統 一 院

海外僑胞의 北韓訪問 實際와 教訓

研究責任 南仁淑 (曉星女大 教授)



해미도서관
북한방문

統一院

•

2000
2001
2002

책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北韓訪問 經驗者(주로 海外同胞)를 中心으로 그 實態와 問題點을 把握하여 南北韓 人的交流 推進의 基礎 資料로 活用하기 위한 研究結果입니다.

이 研究書의 내용이 關聯分野를 研究·擔當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報告書에 收錄된 내용이 반드시 當院의 見解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添言합니다.

1991. 2

統一政策室

目 次

1. 序 言	3
2. 問題 提起	7
3. 北韓訪問 經驗者 類型別・目的別 分類	10
(1) 事例研究	
(2) 實態와 問題點	
(3) 態度變化	
4. 北韓訪問 豫定者에 대한 行動指針	27
(1) 訪北時 留意事項	
(2) 身邊安全 對策과 秩序維持	
5. 效率的 支援・管理方案	31
6. 離散家族의 國內 活用方案	34
7. 結 論	36

海外僑胞의 北韓訪問 實際와 敎訓

研究責任 南仁淑(暁星女大敎授)

1. 序 言

1991. 7. 1 동독지폐가 歷史의 遺物로 변해서 統一獨逸의 쓰레기가 되었다. 分斷으로 인해 南北으로 1천만의 흩어진 家族이 죽기 전에 서로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부럽다 못해 劣等感 마저 느끼게 한다. 世界地圖에 새끼손가락 보다도 작은 나라로 存在하면서 6.25動亂을 비롯한 名譽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했다.

특히 北韓은 開放과 民主化를 遂行하지 못하는 地球上의 거의 마지막 나라가 되어 지금까지는 西方側의 非難만 甘受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社會主義 兄弟國들의 非難조차 피할 수 없게 되었다. 國家維持를 위한 最小限의 國際 秩序속에 자리잡기 조차 힘들어진 우리의 반쪽이다.

1975년 8월 도끼鬻行事件이 일어났을 때 인디애나주 出身의 美軍 한명이 殺害되었는데 筆者는 마침 그곳에서 留學하고 있었다.

美國의 中部는 그들의 등뼈라고 하리 만큼 比較的 純粹하고 素朴한 白人的 領域인데 이 끔찍한 事件에 대해 地方 매스컴에서는 불을 뿜었고 카페테리아에서 食事を 하는데 내 옆으로 平素 親分이 있는 한 大學院 학생이 가까이 오더니 “코리안은 野蠻人이다”라고 했다.

물론 北韓사람이 그런 짓을 했고 鬻行을 한 사람은 共產軍임을 強調하는

나에게 그 남학생은 自己의 새끼손가락을 가만히 쳐들면서 “世界 地圖에
요것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무슨 南과 北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순간 배달 거래라는 單語를 모르고 있을 그에게 感謝했고 그 以後부터
하늘보고 침뱉는 격인 北韓 非難하기를 意識적으로 自製했다. 동시에 시
끄럽던 韓國狀況에 대한 비난도 물론 삼가했다.

率直히 40년간 怨讐로 여겨온 北韓이 “朝鮮은 하나다”라고 의칠 때 섬
짓하게 느끼는 老人層도 있을 것이다. 統一을 하려면 南韓이 어떻게 변해
야 할지 아니면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自問하지 않을 수 없다. 西獨
처럼 巨額의 돈을 소련에게 주어 人質로 잡혔던 동생 때내오듯 데리고
나와 씻기고 먹이고 職場까지도 轉旋할 자신은 있는가. 전혀 다른 環境에
서 자라 말끝마다 憎惡·咀呪·鬭爭意識에 휩싸여 그냥 듣고 있으면 곧
우리를 때려 죽일 것 같은 精神을 가진 그들에게 天文學的인 額數의 돈
을 쉽게 쓰겠는가.

은갓 苦生을 하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숨넘어 가면서도 “위대한 수령
님을 모시겠다, 앞으로 나를 黨員이라고 불러달라!”고 부르짖는 멍청한
그들을 위해 입을 것 먹을 것 節約하며 모든 돈을 갈라써야 한다니 아깝
기는 하다. 그렇다고 分斷을 永久化할 수는 더욱 없다.

6.25 40주년 戰爭紀念 國際學術會議에 教授가 되어 婦人과 함께 參席했
던 옛 美軍 參戰勇士는 韓國의 發展을 自己의 일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
였다. 아무리 올림픽경기를 TV를 통해서 보았고 은갓 新聞이나 다른 媒
體를 통해 들었지만 정말 이 땅이 바로 廢墟가 되었던 그 場所라고 도저
히 믿을 수 없다면서 奇蹟을 이루어 놓은 韓國人의 能力에 眞實로 感歎
했다.

美國은 歷史 以來 수십번 戰爭을 했지만 最近의 파나마戰爭까지 합쳐 國內外 死亡者 數가 150여만 명인데 韓國戰爭은 바로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300만 내지 400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것도 父母, 兄弟, 親知, 이웃들의 눈앞에서 한꺼번에 죽어갔고 150만 명의 戰爭孤兒와 寡婦를 남기고 全國土의 4분의 3은 잿더미가 되었다.

죽음과 가난과 배고픔의 記憶을 묻고 荒廢하고 暗澹했던 大地를 建設과 經濟復興의 나라로 變貌시킨 韓國 國民을 世界에서 가장 優秀한 民族이라며 參戰勇士는 眞心어린 感服을 했다. 韓國情勢가 國內外的으로 시끄럽고 不安하다는 뉴스를 接할 때 戰友들의 죽음이 헛고생이었는가 하는 疑心도 했던 것 같았다. 그러나 韓國은 廢墟에서 기적을 이루었고 民族의 統一을 위해 다음 段階로 발돋움하는 時點에 왔다.

韓國에서 가장 時急한 것은 「理念教育」이다. 東西獨은 수십년 동안 해왔고 臺灣과 中國은 3民主義 가운데 하나인 「民生主義」라는 民主社會的인 民生理論을 두 體制에서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理念的으로는 어느 정도 미리 準備되어 있는데 우리는 戰爭後 서로 원수가 되어 南韓에서는 反共教育만 해 왔기 때문에 交流 以前에 하루 빨리 理念政策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人的交流은 南韓 社會에 큰 混亂을 가져 올 것이기에 이런 報告書를 作成하면서 統一院側에서 提示한 研究計劃書의 規格대로 文脈을 끌어가기 어렵다. 部分에 따라서 作成者 마음대로 內容을 變化시키게 될지도, 分量을 加減하게 될지도 豫測할 수 없다.

그러나 로스엔젤레스 居住僑胞들은 상당한 時間을 들여, 多樣한 接觸 채널을 통해서 南北韓 人的交流事業의 代表的인 人物이나 北韓 訪問者들

을 만났으므로 샘플이 적다고 하더라도 質이나 量에 있어 더 이상 깊이 있는 面談을 할 수 없을 지 모른다.

다만 일부분이라도 貢獻이 된다면 좋겠고 그 外에는 나름대로 오래동안 海外僑胞로서 北韓 訪問者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平素의 觀察을 쓰느라 科學性을 덜 띤 主觀的인 表現이 있을 수 있음에 諒解를 구하며 筆者 自身도 샘플의 對象이라는 點 또한 유의해 주기 바란다.

2. 問題 提起

1988년의 7. 7宣言은 大韓民國 歷史上 政府가 내놓은 가장 前進的인 民族問題 解決을 위한 方案이었다.

- ① 南北韓 相互間의 人的交流의 積極的 推進과 海外同胞의 北韓 訪問 許容
- ② 離散家族들의 生死·住所確認 및 書信往來
- ③ 南北韓 交易을 위한 門戶開放
- ④ 韓國의 友邦과 北韓과의 非軍事的 物資交流 不反對
- ⑤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 競爭 및 對決外交 終熄
- ⑥ 北韓과 韓國의 友邦과의 關係改善 協調 및 中·蘇 등 北韓의 友邦과의 關係改善 意志表明등을 主要骨子로 하는 것으로 北韓을 더 이상 敵對的 對決의 對象者로서가 아니라 民族問題 解決과 「民族共同體」 形成의 同伴者로 闡明하였다.

그런데 이런 劃機的인 措置의 後續으로 1988년 8.15 慶祝辭와 UN總會에서 大統領이 행한 演說은 곧 「準統一」 정도는 될 것 같이 國民을 興奮시켰으나 그로 因해 오히려 社會에 混亂이 오기도 했다.

7. 7宣言에 이어 政府는 統一論議를 制限的으로 許容했고 北韓 關聯資料를 公開하고 北韓 外交官과의 接觸 許容 및 北韓과의 交易에 對備한 對北經濟措置도 發表하였으며, 相互間의 不可侵宣言을 위한 南北國會會談까지 推進하게 되었다.

그런데, 政府가 '民族共同體' 形成이라는 막연하고 具體的이지 못한 表現을 使用하여 統一된 祖國의 分명한 모습에 대한 言及이 없자 두개의

韓國論을 長期化시킨다는 評을 듣게 되었고 급기야 性急한 人事들의 잇달은 訪北事件은 憲政體制의 維持를 威脅하게 되어서 南北交流의 窓口 單一化가 強力히 擡頭되었다.

國內의 狀況이 '左傾容共勢力'의 拓決쪽으로 기울게 되자 7.7宣言 以後 돈까지 써가며 離散家族의 生死를 겨우 確認한 海外同胞들에게도 影響이 가서 僑胞社會의 混亂을 가져오게 되었다.

7.7宣言은 對外宣傳用일 뿐이니 가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 僑胞들은 不安해서 訪北을 拋棄하는가 하면 父母 죽기 前에 큰 맘먹고 다녀오기로 決心하는 사람도 있었다.

離散家族을 찾는데 1-2년 걸리다 보니 最近에야 겨우 찾게 된 사람도 있고 컴퓨터나 電話通信施設이 시원찮은 北韓에서 繼續 기다리랴든가 꼭 찾는 사람은 아직 없으나 당신을 안다는 누구의 所在地는 把握했다는 連絡을 듣게 되면 故鄉訪問의 衝動을 抑制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가서 VIP 待接을 받으면 訪北을 挽留하던 사람들을 嫌惡하기 始作한다. 訪問하기 전에는 많은 離散家族이나 失鄉民에게 가장 밋고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金日成인데 한번 빛나가면 '民族의 太陽 金日成장군'의 나라에 다시 가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못사니까 불쌍해서 도우려 한다.

이러한 傾向으로 말미암아 離散家族을 비롯한 學者, 學生, 宗教人, 藝術人, 政治人 심지어는 女性團體까지도 直接 北韓에 가보고 싶어하게 '헛 바람'을 넣었다.

北韓에서는 外貨가 切實하므로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었으면 內心 바라고 특히 84년의 合營法 制定 以後 事業家의 訪問에 期待가 크며 觀光客 誘致에 關心을 集中한다.

7. 7宣言의 좋은 뜻과 目標가 海外同胞들 특히 美州僑胞들 사이에서 많은 副作用과 逆效果를 나타내는 理由는 무엇일까? 이를 改善하기 위한 資料와 建議事項이 提示되기를 바라면서 參考的으로 이글을 쓴다.

3. 北韓訪問 經驗者 類型別 · 目的別 分類

(1) 事例研究

北韓을 訪問하는 사람들을 類型別로 離散家族, 學者, 宗教人, 事業家, 團體指導者의 順序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 前에는 北韓에서 親知訪問을 제일 歡迎했는데 最近에 와서는 돈이 많은 事業家を 願하고 團體指導者들을 한때는 願했으나 이제는 2차적이 되었다. 그 理由는 朝總聯 같은 團體組織을 만들어 볼까하는 기대 때문에 團體長을 願했다가 美國에서 그런 組織이 誕生하기가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을 北韓에서 알게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現在 北韓에서 가장 거리는 사람들은 在美學者인 것 같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맘을 많이하고 經濟的으로 北韓에 큰 得을 보일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골치거리로 登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學者 中에서도 家族이 北韓에 있거나 美國에서 큰 待接을 못 받는 사람은 방북후에 親北으로 기우는 傾向이 있다. 親北人士가 되어 每年 北韓에서 招請되고 있는 10여명의 美國學者들이 이 類型에 屬한다.

北韓에 다녀오면 대체로 크게 4가지 類型으로 된다고 前 LA韓人會長이며 現在 僑胞問題研究所長인 김기성씨를 비롯하여 방북교포를 對象으로 活動하는 몇몇 主要人士들의 意見이 거의 一致한다. 그런데 이들이 直接으로 상대한 北韓 訪問者의 수는 약 2백명으로 推定되며 科學的인 샘플을 選拔할 수 있는 條件이 못되기 때문에 面談者 選拔과 인터뷰에 많은 神經을 썼다.

① 北韓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 해보았자 덕볼 것이 없고

結果에 대해 무섭기만 한 境遇이다. 이 類型中에 간혹 秘密裡에 使命感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기가 北韓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類型이다. 全體의 40%정도가 되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 조용할 수도 있다.

- ② 다녀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感情的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다. 안가 본 것 보다 못하다고 露骨的으로 말한다. 北韓의 實態에 失望한 사람들이며 약 30%정도로 推算되는데 能動的으로 表現을 하니까 나타난다.
- ③ 民族的 次元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知識人 가운데 많은 편인데 美國에 사는 僑胞들이 個人的으로 도와야 한다는 意見과 韓國政府次元에서 도와야 한다는 意見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약 20%정도가 될 것 같다.
- ④ 北韓을 讚揚하게 되며 韓國政府에 嫌惡感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다. 過去 韓國社會에서 疎外당한 사람 가운데 北韓 住民들에게 同情을 느끼게 된 境遇도 있다. 그 중에서는 앞으로 北韓하고 일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사람의 同調者라도 더 만들기 위해 宣傳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純粹하게 북쪽 案內員의 이야기를 믿고 생각보다 좋다고 느끼게도 된다. 反共教育을 너무 심하게 받았다가 갑자기 변한 사람들이다. 약 10% 정도가 된다.

以上の 分布에는 5% 내지 10%의 誤差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백명을 동시에 만난 것도 아니고 시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類型的 變動이 可能하며 따라서 分布는 流動的이다. 위

의 比率은 方북 直後부터 6개월 사이의 態度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다. 시간이 흘러 再考하거나 2次, 3次 訪問으로 思考의 變化가 올 可能性은 充分하다.

대체로 理想主義者, 現在 하는 일이 옳게 되어가지 않거나 무슨일에도 쉽게 滿足하지 못하는 現實批判主義者, 統一이나 社會問題에 無關心하다가 갑자기 關心을 가지게 된 知識人, 남에게 認定받거나 關心의 對象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北韓을 美化하거나 進步的인 統一觀에 쉽게 同調하게 되는 것 같다.

아리조나 州立大學의 K教授는 무슨 일에도 滿足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녀오면 어떤 態度로 나올지 궁금했는데 豫想대로 韓國의 教授들이 “그사람 北韓서 돈 받았지요?” 하고 물었다. 北韓에서 그런 사람에게 줄 돈도 없거니와 돈 받아 먹었다고 해서 자기의 理念을 굽히고 탄소리 할 사람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辨明을 해 주었다. 故鄉이 北韓이라는 事實도 無視할 수는 없는 變數이기도 하며 經濟專門家로서 建築科에 속해있기 때문에 學問的으로 北韓의 建築物에 關心이 있기도 하다.

“분단을 넘어서”를 編輯한 양은식博士는 祖國統一協議會 議長이기도 한데 그의 境遇 北韓의 어머니를 相逢하고 와서 領事館에 報告를 하지 않았다는 理由가 發端이 되어 자연히 親北人士로 規定되었다. 篤實한 基督教 長老이고 平素 信實했던 사람으로 領事館側에서 韓國訪問비자를 주었더라면 그렇게까지 親北人士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양은식博士도 대인관계에 조금만 더 神經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韓國에 오는 비자를 주지 않은 것이나, 懷柔해 보기도 전에 따들렸다는 것은 失手라면 失手라 할 수도 있다.

그에 의하면 北韓을 다녀 온 사람은 가기 전보다 北韓에 대한 恐怖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人心 좋고 熱心히 일하고 있어서 좋은 印象을 받았다고 한다.

美國政府는 큰 關心은 없으면서도 FBI가 直接 나와서 한 두건 調査를 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南北同胞間의 積極的인 相互交流 推進과 海外同胞의 南北自由往來를 위한 門戶 自由 開放을 推進한다거나 離散家族들의 生死·住所確認, 書信往來, 相互訪問을 周旋하겠다는 7.7宣言을 實行하는게 좋다고 했다.

미조리 센트럴大學 선우학원教授는 양은식博士와 함께 平壤祝典에도 招待되어 다녀왔다. 그는 例를 들어 筆者가 東亞日報에 連載한 北韓에 관한 글에 대해 觀察力이 놀랍고 깊이가 있으며 특히 요리조리 피해가며 南北韓 政府를 건드리지 않아 技術이 좋으면서 그 글이 連載되고 있는 途中에 電話를 해 주었다. 韓國 國內의 新聞에 그런 글이 실릴 수 있다는 自體에 新鮮한 衝激을 받았으며 글 內容이 좋다는 評을 傳해왔다. 在美學者이고 知識人이기 때문에 北韓側에 同調해서 일을 해도 限界가 있으며 連載物의 內容은 北韓體制를 根本적으로 否定하고 있다.

事實 이렇게 美國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나 學者가 北韓에 많이 들락날락할수록 그 쪽 社會의 硬直된 點을 고치는데 影響을 줄 수 있고, 그 쪽 社會雰圍氣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役割도 하므로 이 쪽에서 대하기 나름인 것 같다.

그와의 電話 인터뷰에서 金日成의 健康은 앞으로 10年은 問題없을 것 같다고 했으며, 동유럽의 變化 以後 北韓은 모든 面에서 自制하고 美國이 자기들에게 肯定的인 態度를 보여 줄 것을 속으로는 무척 바란다고 했다.

예를 들어, 美國人 遺骸 返還에 있어서도 北韓側은 北京을 통해서 가져가기를 願했고 美國側에서는 板門店 通過를 원했는데 결국 미국의 意思를 따랐다고 한다.

在美僑胞들이 北韓에 들어갈 때마다 美國의 힘이나 南韓의 發展相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요사이 世上은 經濟와 돈으로 말하는 세상인데 너무 軍事訓練에 執着하지 말라는 忠告도 露骨的으로 한다. 로스엔젤레스 近郊에서 모터사이클 都賣商을 經營하는 이성만씨의 境遇는 곧 찾게 될 三寸을 만날까 하여 이미 消息을 알게된 친척도 만날 겸 자주가는데 갈 때마다 같은 案内員이 자기를 맞이하지만 態度가 變化하고 있음을 直感한다고 했다.

美國같이 法 앞에 平等하고 機會가 均等한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 基盤을 굳건히 잡은 사람들은 南韓政府나 領事館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人道的이고 教育的인 次元에서 할 道理를 하고 있다.

샌디아고에서 建築業을 크게 하고 있는 僑胞 B씨도 昨年 3월 두번 째로 事業次 北韓을 訪問하고 希望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것은 相關 없고 그 사이 祖國을 방문해서 자기는 손해본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일을 이런식으로 하면서 國際社會에 登場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아예 꿈도 꾸지말고 한 50년 더 閉鎖政策이나 쓰고 잘 살아 보라면서 平壤을 떠났다. 자기회사 職員까지 旅費쓰고 데려가서 이틀 밤만 머무르고 돌아왔다.

北韓에서는 家族 방문 오는 사람은 VIP待遇를 하고 전혀 政治性을 띠지 않고 待接을 하는데 이는 방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情을 가득 안고 돌아오게 만든다.

지금까지 방문자의 숫자는 말할 수 없으며, 旅行社를 하는 그녀는 자기 일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고 北韓 訪問을 막는 사람이 많은데 방북인의 숫자를 말해서 너무 많으면 自己 事業에 妨害가 될 뿐이라고 한다.

양은식博士도 僑胞가 北韓을 다녀오면 北韓과 美國과의 關係 改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觀光만이라도 許諾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美國法은 5개 敵性國家에 5백불 未滿의 膳物을 가져 갈 수 있고 또 5백불 未滿의 膳物을 美國으로 들여올 수 있을 뿐이다.

또한. 觀光業을 하는 사람조차도 敵性國家 사람들은 美國에 들어갈 수 없는데 北韓은 美國市民 2千名 以上에게 비자를 주었다. 그런데 美國은 10名 以下の 北韓사람에게 비자를 주었을 뿐이다. 2千名の 10%에 該當하는 200名에게라도 비자를 줄 수 없는지 疑問이며 과연 어느 나라가 더 閉鎖的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美國에서 北韓을 訪問하는 사람은 純粹한 訪問을 가는 觀光客일 수 있으나 北韓에서 美國으로 오는 사람은 단순히 觀光을 目的으로 하는 訪問이 아니기에 나타나는 現狀이 아닌가 생각된다. 電話도 北韓에서는 美國으로 제3국을 거쳐서라도 可能하나 美國에서 北韓으로는 通話되지 않는다. 카터政府가 들어섰을 때 會社에서 몇개월 동안 通話를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즉 施設은 다 되어 있으나 그 이후 通話되지 않고 있다. 施設費를 생각해서라도 ITT와의 通話가 可能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캐나다에서 可能的한 通話가 美國에서는 안되므로 反感을 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양은식博士는 말하고 있다.

1987년 10월 盧大統領이 로스엔젤레스를 訪問時 김춘자씨가 運營하는

全金旅行社를 稱讚했다.

어떤 사람들은 北韓을 다녀 왔다고 하면 金日成을 보고 왔냐고 묻는데 이는 대단한 失禮이다. 南北關係에 얽힌 沒常識한 이러한 質問들을 조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녀는 旅行社 經營人답게 海外同胞가 모두 北韓을 다녀오면 그곳은 이미 신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自覺하기에 南韓과 美國이 하루 빨리 交流를 推進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訪北의 境遇 外務部에서 旅行申請書를 읽어 본 후 비자를 管理한다.

北韓을 다녀온 僑胞에게 韓人社會에서 無禮한 것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李光德牧師까지도 韓美文化센터 紀念式에 招待를 하지 않았다. 美國 같이 크고 힘이 莫強한 나라가 北韓같이 힘이 없고 작은 나라에게 包容力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世界에서 제일 開放되었다고 생각하는 美國이 오히려 閉鎖되어 있고 北韓은 開放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는 主張을 한다.

美國 國務省에서는 在美僑胞들이 親善골프大會를 北韓에서 열도록 申請했으나 許諾해 본 例가 없다. 그리고 美國政府 自體도 昨年 여름까지만 해도 美國 大學研究所에 北韓教授가 1년까지라도 와서 研究하도록 해준다고 하고 그외 文化交流도 最大의 融通性을 보이는 듯 하더니 몇개월 후에 硬直되고 最近에 와서는 態度가 변했다.

이제는 日本과 美國이 競爭的으로 北韓에 關心을 가지게 되어 다행이다. 在美僑胞들의 美國에 대한 誤解도 풀어주고 韓國政府도 얼마 전까지 領事館에 申告하는 것만으로 北韓을 訪問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했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이것이 事實이라면 韓國政府도 7.7宣言의 진의를 實踐에 옮길 必要性을 느끼게 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만 繼續되고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北韓의 開放과 訪問者의 活用對策도 自信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結果도 시간 문제로 우리側의 願하는대로 될 수 밖에 없다. 旅行規制도 풀어 주어야 한다. 北韓은 海外 同胞를 最高 優待한다. 옛날과는 다르게 시골에 있는 親戚집에도 갈 수 있고 함께 잠도 자니까 南韓의 消息을 北韓 住民들이 그런대로 알 수 있다. 北韓은 남에게 依存하지 않고 自尊心이 強하다.

韓國政府가 僑胞의 北韓 訪問을 獎勵한다면 훨씬 많은 수가 訪問할 것이다. 南北 어느 쪽이든 70세가 넘는 사람이면 언제든 訪問할 수 있다면 離散家族政策은 成功할 것이다.

풀장은 10여년전 自己가 美國 CIA要員이라고 하면서 張○○씨와 에드류 南교수를 북한에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 후 장○○씨와 에드류 南은 풀장을 美國 CIA要員인 줄 속아서 다녀왔으므로 罪가 없지만 풀장은 美國에 居住할 수 없게 되었다. 주로 北京에 居住하면서 訪北人士를 도운다고 하며 美國에서 北京을 訪問하고 싶은 사람은 自己가 당장 비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해 왔다. 美國에서는 죄를 지어도 10년이 지나면 公訴無效가 되므로 最近에 다시 僑胞社會에 登場하여 離散家族을 돕겠다고 한다.

또 最近에 北韓을 다녀 온 P씨는 北韓을 訪問한 사람은 전혀 洗腦工作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며, 北韓을 訪問한 것이 바로 祖國에 貢獻한 것이라고 듣고 왔다고 한다. 또 우리 世代에 統一을 못하면 다음 世代에는 더욱 어렵다고 듣고 왔다고 하며 自己처럼 分斷 以前의 祖國을 記憶하고 故郷에 대해 鄉愁를 느끼는 사람이 살아 있을때 統一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20년이 더 지난 다음에는 統一은 不可能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北韓은 精神力이 強한데 비해 南韓은 物質面에서 앞서 있

다. 그는 金日成大學의 學生이 생각했던 것보다 劃一的이지 아니하였고, 平壤과 農村의 差異가 너무나 다름에 놀랐다고 한다.

家族訪問을 다녀온 사람이 離散家族會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朝總聯처럼은 되지 않는다고 主張한다. 왜냐하면 美國에서는 日本에서처럼 壓迫받지도 당하지도 않으므로 名分이 弱하다고 한다.

로스엔젤레스의 事業家 한 사람은 北韓의 案内員이 主體思想에 대한 說明을 입에 거품을 품고 열심히 하는 主體塔 아래서 나직하게 “주체사상”이라고 읊조렸다. 그리고 朝總聯 김만유가 寄附해서 建築된 病院 앞에서는 餘裕가 있으면 이런 일을 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商工會議所팀과 같은 事業家들은 南韓의 物價가 비싸서 外國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母國에 와서 빚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北韓에 가서 재미로 돈을 쓰고 싶어하는 호기를 가지고 있다. 實際로 얼마를 寄附하면 平壤市의 조그만한 길을 자기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第13次 平壤祝典 前에 訪問하였던 事業家 K女史에게는 大同江邊에 佛蘭西 資本과 技術로 짓고 있는 47層의 양각도 觀光호텔 地下에 빠징코장을 開業하라고 北韓側에서 慫慂하였다. 筆者와 議論도 하고 韓國政府와 相議도 한 것으로 알지만 勝算없는 일임은 물론이고 차라리 좋은 事業에 돈을 投資하지 享樂事業은 정말 意味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LA에서 銀行業과 제일 이름난 膳物가게를 經營하던 N씨 夫婦에게는 平壤飛行場에 膳物가게를 열어 달라는 付託이 왔고 平壤胎生인 이들 夫婦는 故鄉 訪問次 北韓을 돌아 보았으나 그저 얼마를 기부했으면 했지 事業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事業에 밝은 이 夫婦는 돌아 오는 길에 홍콩에 이름만 있는 會社를 차리고 北韓에서 生産되는 모든 漢藥材料를

자기에게 팔도록 하는 契約을 締結했다.

北韓의 조개껍질에 關心을 가지게 된 某 事業家는 자개를 生産하기 위해 北韓에서 버리는 조개껍질을 모두 자기가 가지겠다고 하는 事業契約을 만들려고도 했다. LA에서 不動産 紹介業을 하는 이 사람도 北韓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고 싶은 장사가 없어 이런 提案을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신덕샘물이나 北韓의 生水를 美國으로 輸入하려는 事業家가 있으나 北韓에서 플라스틱 병을 生産하지 못하므로 瓶工場까지 차릴 마음은 없다는 苦衷을 털어 놓았다. 이 사람도 家族訪問이 미끼가 되어 곧 찾을 것 같은 親知를 만날까 하여 몇 번 다녀왔다.

美國에서 일종의 高利貸金業을 하는 사람이 事業家 資格으로 北韓에 갔을 때 그렇게나 초라하고 商店에 팔 物件이 不足한 地境인데도 자기 마음에 들면 가게 물건을 싹쓸이하는 慾心을 보였다. 北韓이 얼마나 못사는지 妙香山 膳物가게 등에 가면 山에서 따온 차종류나 도라지 등의 산나물조차 거의 없다. 뒤에 오는 觀光客이 생긴 모양이라도 구경하도록 商品을 남겨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北韓에서는 많이 파는 것이 目的이 아니라 진열에 더 神經을 쓴다. 눈치를 차렸으면 어느 정도의 禮儀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北韓 訪問者들의 訪問目的은 크게 家族再會, 故鄉訪問, 觀光, 事業實態調查, 宗教的 次元, 學術研究關係, 言論界 訪問, 好奇心과 虛榮心이 합친 것,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잘 안되는 사람이 使命이나 하나 말아서 統一事業하는 척 하면서 生計를 維持하려는 사람 등이라고 보여진다. 어떤 사람은 隱退後에 親知를 美國으로 移民시키거나 留學시킬

目的으로 訪問하며 그리고 極少數이지만 美國서도 韓國서도 所屬感을 못 찾는 사람이 가는 수도 있을 것이다.

事業家나 言論家 중에서는 일이 잘 안되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 틈을 내거나 급히 利得을 보려는 사람도 있다.

(2) 實態와 問題點

美國內에서의 北韓 離散家族들의 生死·住所確認, 書信往來, 相互訪問을 周旋해 주는 後援會가 로스엔젤레스에 두 곳, 뉴욕에 한 곳 있고, 캐나다에 한 곳이 있다. 로스엔젤레스의 韓國日報社 變副局長은 離散家族을 包含하여 北韓을 訪問한 僑胞는 3천명은 넘을 것이라고 하였다. 北韓 當局에서는 1980년 이후 外國人 5만명이 자기들을 訪問했다고 하는데 僑胞 3천명 중에서 1천명은 캐나다를 중심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僑胞가 包含되어 있고 또한 3천명 가운데 10%정도는 反復하여 訪問하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判斷된다.

3천명의 僑胞중에 다녀 와서 느끼는 感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차라리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北韓의 實相이나 家族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失望하고 불쌍해서 후회스럽다고 하는 部類
- ②특히 離散家族을 찾는데 많은 經濟的 부분을 감당했고 기다리는 동안 몇년씩 神經을 썼던 것에 비해 虛無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부류가 있다. 한꺼번에 離散家族을 다 찾거나 만날 수 있는 幸運이 오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生業을 몇주일 中斷 내지 支障을 招來하기까지도 한다. 이런 支障과 함께 여러 헛수 재차 訪問할 必要性에 懷疑를 느끼기도 한다.

③美貨 1천弗만 있으면 1년을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자랑하며 宣傳하는 것에 比하여 生活 水準이 韓國의 1950년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

北韓 사람들이 統一을 하겠다는 意志는 대견스러우나 方法에 있어서 너무 세련되지 못하고 세상을 單純하게 보는 것 같아서 問題點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④北韓을 訪問했을 때 訪問前에 가졌던 不安과 恐怖는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었으며 洗腦工作도 느끼지 못했다. 北韓을 訪問해서 實際로 體驗하지 않고는 北韓을 알 수 없다며 當장 離散家族會라도 만들어 自由로운 往來를 可能하도록 努力하겠다고 하는 부류다.

특히 마지막 部類인 ④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日本의 朝總聯같은 그룹들이 미국내에도 생길 것이라고 憂慮를 하는 關係 人士들이 있지만 日本과 美國은 社會環境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極히 少數의 몇 사람이 主動이 되어도 美國內에서는 日本처럼 差別 待遇를 당하지 않고 平和롭게 사는 僑胞들이 對外的 名分을 찾기가 어려워서라도 그러한 團體에 加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憂慮보다는 訪問豫定者들에게 親切하게 對民關係를 펴거나 다녀온 후에도 냉담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조총련과 같은 團體가 생기는 것을 크게 憂慮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 큰 問題는 訪問하였던 사람들에게 의해 밝혀진 것인데 政府의 某關係官은 制限이 없으니 가도 된다고 이야기 하고 또 다른 關係官은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녀 온 후에 不利益이 생기더라도 責任을 질 수 없다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海外 永住權者는 申告만 하면

된다는 말만을 믿고 計劃을 세웠던 사람들이 自己 혼자 興奮하고 들떠 있던 작사람에 화가 난다고 말한다.

最近 政府의 한 관계관이 다녀갔는데 역시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우물쭈물하고 애매한 態度만 보이고 갔다. 政府側에서 確固한 指針을 세운 후 國民이나 僑胞들에게 一貫性 있고 명확한 態度를 보일 때 信賴를 받게 될 것이다.

자주 北韓을 訪問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變하지 않는다고 保障할 수는 없다. 많이 다녀온 사람일수록 北韓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기 때문에 점점 批判的이 되기도 한다. 領事館이나 政府側에서 親北 人士들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思考方式은 삼가해야 한다.

北韓에 親戚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대한 言及을 回避한다든가 몇 가지 좋은 점을 發見하고 다소 讚揚할 수는 있다. 그 정도를 理解 못한다면 困難하다. 理解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어떤 社會나 體制가 全部 나쁘지는 아니하다는 前提를 認定해 주어야 한다. 즉 한 두가지의 좋은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은 默認해 주어야 할 것이다.

北韓에 緣故者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北韓을 客觀的으로 보고 와서 率直한 批判을 하기 때문에 訪問者가 많아 진다고 해서 손해는 아닐 것이다. 특히 北韓이 關心을 가지고 있는 商工會議所의 指導團體格인 라이온스나 기타 그룹은 北韓의 落後性을 보고 讚揚할 理由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案內員을 오래 한 사람은 이쪽의 現實을 듣고 알게 되어 脈이 없고 氣가 죽는다. 한 두사람도 아니고 가는 사람마다 이곳 事情을 전해 주기 때문에 소위 「遮斷者」라는 別名을 듣고 있는 案內員마저 影響을 받는 現時點에 處해 있다고 하겠다. 안내원이나 海外 同胞를 상대하

는 機關 從事者들이 東歐의 움직임이나 韓蘇 關係改善 움직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어려운 北韓形便에 美國의 親北韓 人物 10여명에게 經費 全額을 負擔하면서까지 招請하고 그들의 組織에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支援을 하는 理由는 實際 이상으로 親北人士들을 큰 인물로 본다든가 影響力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期待 또한 크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버클리대학의 스칼라피노교수와 같은 美國의 長官職도 스스로 마다한 學者의 待接에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은 北韓側의 失手라고 보여 진다.

세계의 많은 政策 擔當者들이 亞細亞問題에 있어서 스칼라피노교수의 影響을 받고 있는 이러한 現實을 北韓은 모르는 것 같다. 모 한국교수와 함께 北韓을 訪問한 美國의 次官補級에게 다른 사람의 몇 분의 1정도 조차도 待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北韓을 訪問하고 北韓 社會에 影響을 주게 된다면 北韓의 開放에 도움을 줄 것이다. 最近 北韓이 緊張을 많이 해서 미국내의 韓國新聞 記者들의 團體 訪問마저도 許諾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北韓을 다녀 오게 하면 北韓보다 南韓側에 有利하게 될 것 같다. 北韓이 工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接觸을 많이 시키면 한 두 사람이 그쪽 편이 되거나 그쪽에 남더라도 편찮다.

20명중에 1명이 工作員이 되고 19명이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게릴라와 正規軍의 힘은 8:1이라고 한다. 1명이 10명을 해칠 수 있는 힘이 되어도 北韓이 開放된 西方 社會를 볼 수 있는 唯一한 通路가 訪問者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어떤 學者는 1960년대의 日本의 北透政策을 妨害하지 않고 그대로 두

어서 많은 사람들이 北韓에 갔더라면 北送者에게는 人道的으로 미안하지만 北韓社會의 開放은 促進되었을 것이라는 理論을 갖고 있다.

일제 植民地에서 解放되는 날까지 北韓은 西歐 傳統을 물렸다. 基督教人과 自由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南韓으로 와 버렸고 共產主義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馬賊團 出身들이 자기들 水準의 政治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東歐에서 공부해 온 사람들도 자신의 意思를 明確하게 펼치지 못하는 實情이다.

北送된 同胞가 日本婦人까지 합쳐 수십배 더 많이 갔더라면 日本이 지금보다 훨씬 北韓에 관해 떠들고 關心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北韓의 開放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北韓側의 美國과 南韓 接近方式은 原始的이다. 차라리 海外 親北 人士들이 北韓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美國과 南韓에 보탬이 된다. 美國 僑胞의 親北 자체는 利敵 行爲가 되지만 현재 世界 情勢로 보아서 그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北韓은 쿠바, 알바니아, 루마니아 그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어둡고 人權이나 西歐 文化에 관해 무지하다.

(3) 態度變化

態度變化에서 不定的으로 되는 사람의 全形的인 본보기는 離散家族 가 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렵게 돈 벌어서 그리운 家族을 찾겠다고 勇氣를 내어 신청한 후 1-2년 기다려 겨우 소식을 알고나면 婦人을 조르기 시작한다.

婦人은 韓國과의 事業에 支障이 있을지도 모르고 訪問時 男便身邊의 不安을 걱정하여 가지 말았으면 하는 쪽으로 기울고, 本人은 이미 돈도

많이 써서 찾은 父母兄弟 죽기 전에 가봐야 도리일 것 같고 해서 끙끙거리며 고민하다가 용감하게 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安全하고 平和로와 보이고 歡迎도 받고 政治宣傳도 하지 않으니 韓國政府에 대한 不信이 싹트며 以北을 誠實하게 보게 된다는 경우이다.

우선 血肉이 남아있는 故鄉을 다녀오고 특히 儒敎文化를 간직한 우리 民族 가운데 北韓을 在訪問하고 싶은 慾望과 그리움은 當然하다. 僑胞들이라면 어느 정도 經濟的인 基盤도 잡혔겠다, 物價도 싸고 공기 좋고 가난한 親知에게 物質的 도움을 주거나 그들이 西方社會를 너무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알려주고 깨우친다는 使命感으로라도 再訪問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

또한 離散家族에게 北韓當國으로부터 事業을 함께 하자고 하는 提議는 상당히 많다. 심지어는 어디에서 돈 벌곳이 없어 조국땅에 와서 돈 벌겠다고 收支計算하느냐며 억지 떼를 쓰는 境遇가 있을 정도로 北韓은 초조하게 조른다.

로스엔젤레스의 事業家들은 北韓에는 DDD電話나 FAX도 없으므로 國際 경쟁에서 무역을 할 수 없다며 期待했던 것 보다도 훨씬 뒤떨어졌다고 失望한다. 貿易하려면 經費가 드는데 電信電話시스템이 힘들면 움질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社會主義 國家끼리 貿易 잘 해 보았자 돈벌기는 어렵고 通信施設을 留置하는 것이 先決問題로 보인다고 한다. 얼굴보면서 電話하고 옆에서는 FAX가 나가는 西歐社會와 競爭할 수 없고 信用狀 하나 만들 形便이 아니어서 답답하다고 한다.

오히려 外貨 몇 푼 벌어보겠다고 物質的 惠澤이나 볼까하여 訪北希望者를 막 받아들였다가 必要以上の 體制變化를 가져오게 될 北韓을 생각

하면 한 두사람 親北되어도 걱정 할 것은 크게 없다. 결국 個人으로 訪問하는 僑胞들은 北韓에 德도 많이 안 보이고 신경만 쓰게 만들고 北韓情報를 外部에 흘리는 일이 많게 된다는 점을 勸案할 때 비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되도록 보내주는 것이 좋다.

親北派가 되어도 結局은 時間問題로 南韓으로 轉向한다. 주위 親舊나 家族이 壓力을 넣고 現實的으로 北韓의 하는 짓이 시원찮은데 언제까지 孤立되어 行動하겠는가. 南北韓 人的交流가 시작되면 體制上的 損害는 아마 北韓이 많이 볼 것이다. 機會 놓치지 말고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금방 北韓을 다녀와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訪北者 親睦會나 리셉션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주의를 돌릴 必要가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스파이 할려고 입 다무는 사람보다는 답답하거나 自身이 無識한 境遇가 많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4. 北韓訪問 豫定者에 대한 行動指針

(1) 訪北時 유의사항

南韓 政府는 訪問者의 事後管理가 더 큰 문제이고 訪問者의 身邊安全을 걱정하겠지만 訪北하여 무례한 行動을 하는 사람들의 問題도 적지 않다. 남의 나라(?)를 訪問 하였으면 그 쪽 사람에게 禮儀를 차리고 尊敬心을 보이던지 가만히 있던지 해야 할 경우이다. 經濟的으로 뒤 떨어져 있다고 眼下無人格으로 北韓사람을 대하는 境遇를 몇 번 보았다.

抗日革命 烈士들의 흉상을 1백개 이상 동상으로 만들어 둔 大聖山 주석봉에서의 일이다. 金正日의 生母 김정숙의 흉상이 맨 윗 줄 한가운데 特別히 모셔져 있는데 誕生 年月日과 死亡 日字가 새겨져 있다. 49년에 죽은 그녀가 겨우 30세가 될까말까 했던 것 같은데 “그여자 結婚이나 해보고 죽었느냐?”는 質問을 案內員에게 큰 소리로 하여 周圍를 놀라게 했다. 가톨릭의 성모마리아 정도로 모시는 김정숙을 모른다는 것은 南韓의 國立墓地에 가서 육영수여사를 嘲弄하는 이상으로 亂暴한 行動이다. 이런 식으로 繼續 나가면 監禁당하지 않는다는 保障도 없다.

연세대학을 卒業하고 미국에 留學 갔다가 事業家가 되었다는 L씨가 金日成大學을 訪問하였을 때 일이다. 校庭의 제일 높은 27層 建物 앞에서 記念 撮影을 하고는 運動場을 걸어오는 學生 몇명을 붙들어 세우더니 자기의 學力을 큰 소리로 소리하면서 “在日同胞는 빠징꼬나 해서 돈 벌은 無識한 사람들이지만 재미교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낮 뜨거운 熱辯을 토했다.

누구 하나 北韓을 돌아보지도 않던 時節에 조총련들은 일본땅에서 구

박받으며 벌은 돈으로 북한의 오늘을 있도록 도왔다. 골프장이나 묘향산 관광호텔이며 病院 등 最新의 情報나 技術이 必要한 分野를 지원했던 것 같다. 대체로 부동산 소개업을 해서 많은 돈을 모은 사람들이 돈자랑에 열을 내는 傾向이 있다.

북한은 道路邊에 화장실이 없으므로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좋고 食堂의 팁은 아무도 안 보도록 주어야 當事者가 가질 수 있으며 호텔 從業員이 中央黨의 간부 부인 내지 상류층의 여성이라는 것 등의 基礎常識을 알고 가는 것이 좋다.

筆者의 經驗으로는 乘用車의 運轉手가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監視하는 當원 같았으며 案内員이 對答하지 못하는 質問의 答도 그는 알고 있었다. 호텔방이나 회의실은 모두 盜聽裝置가 되었다는 것 등은 間接的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北韓에 到着하여 기분이 들뜨기 시작하면 방북시 留意事項까지 그 쪽 案内員에게 이야기 해 버릴 멍청한 사람은 恒常 있기 마련이다.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다고 말해도 상관 없는 情報를 適當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美國法에 의하면 적성국으로 갈 때는 5백달러 이상의 贈物이나 돈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空港이나 搜查機關에 체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事實만은 알아야 한다. 미국으로 들어 올 때도 5백달러가 限定額이다.

觀光을 周旋하는 當事者나 親北 인사에게 贈物이나 現金에 대해 問議했으나 많을 수록 좋다는 態度였다. 理由는 訪問客 옆에 恒常 案内員이 있으므로 物件을 사거나 親戚을 訪問해서 贈物을 주든지간에 얼마를 北

韓 땅에 떨어뜨리는지 모두 알려지기 때문인 것 같다.

북한에서는 모든 消費製品이 귀하고 커피도 없고 설탕조차 없다. 시골에는 된장까지도 도토리로 만들어서 맛이 짙을 정도이니 무엇이나 다 선물로서의 價値가 있다. 방문자의 形便과 嗜好에 따라 편리한 物件을 가져 가면 좋다. 처음 訪問時 너무 많이 가져가면 다음 번에 큰 期待를 가진다는 것도 銘心해야 한다.

(2) 身邊安全對策과 秩序維持

外國記者가 金日成의 얼굴사진이 있는 新聞紙로 구두를 닦다가 強制出國당한 적이 있었다. 가장 危險한 行爲는 金日成, 金正日에 관한 이야기이다. 絶對로 金父子를 욕하면 안되므로 아예 이름을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

外交官까지도 金日成에게 通譯을 잘못했다는 理由로 7年 實刑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平壤市內는 가장 秩序를 잘 지키는 곳이다. 괜히 호기로 道路 橫斷을 잘못하여 그 쪽 사람들에게 弱點을 잡히지 말도록 할 것이다.

더욱이 재미교포들이 開放된 南韓에 와서 無禮하고 自由奔放한 行動을 할 때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北韓에서는 각별히 行動에 조심하는 自制力을 보여야 할 것이다.

個人的으로 訪問하기 보다는 되도록 그룹이나 團體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身邊安全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團體로 가서 每日 숙식을 같이 하더라도 안내원이 따로따로 있으므로 個人에게 맞는 日程을 보낼 수 있고, 必須 觀光코스라 되어 있는 場所에는 同行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또한 訪問者에게 實質的 도움을 주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方法으로 이미 다녀온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機會를 提供한다든가 膳物準備에까지 아이디어를 주는 일은 좋다.

資本主義를 욕먹이지 않으려면 분수에 맞는 適切한 膳物을 가지고 가서 有用하게 쓸 일이다. 값비싼 化粧品을 수십개 사가지고 가서 圖書館에서 공부하는 學生을 불러내어 실컷 妨害하고 두세개씩 나누어 주는 行爲는 주고 욕먹는 境遇이다. 그렇잖아도 北韓住民들은 思想教育을 열심히 받아서 社會主義의 平等思想, 自立性 등을 優越하다고 믿고 있다.

(2) 事後管理

北韓住民들은 南韓住民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모든 訪問者들이 말한다. 南韓에서 몇년 전까지 北韓住民을 全部 빨갱이로 매도하여 相對할 惡毒을 내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북한주민은 南朝鮮 人民을 解放하고 帝國主義에서 救出해 民族統一을 하겠다고 하니 現實性 與否를 떠나서 排斥당하는 느낌은 없다.

北韓 사람들과 對話를 하면 그들이 美帝國主義와 日本帝國主義 및 南韓의 軍事파쇼 獨裁를 들먹이면서 外部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수있다. 반면에 南朝鮮 人民을 解放하는 길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覺悟는 언제든지 되어 있다. 그들은 南韓住民이 힘이 弱하고 自主性이 없어 帝國主義者들의 搾取와 獨裁政權 아래서 헐벗고 신음하는 弱者라고 믿고 있다. 심지어 자기들이 못사는 理由가 南朝鮮 人民解放을 도우려고 입쌀을 貯蓄하기 때문이라며 豊足하게 먹을 수 없는 形便을 辨明하면서도 絶對로 南朝鮮 人民을 미워하지 않는데서 感動을 받는 海外同胞

도 있다.

좀 철저히 事後管理를 하고자 한다면 訪問者를 職業別로 나누어 親睦會를 組織한다든지 아니면 訪問한 時期에 따라 平壤同窓生 등의 이름을 붙여 자주 만나게 하고 되도록이면 뒤에서 돕는다. 政府나 領事館側에서 關心을 가져준다는 뜻에서 親睦會에서 要請하면 茶菓費를 내거나 最近의 北韓映畫를 上映해 주는 등 여러 方法이 있을 것이다. 絶對 관주도의 눈치를 보이면 안된다.

北韓을 다녀 올 程度로 자기 삶에 充實하다 할까 人生觀이 獨特한 사람들일수록 남의 간섭 받기를 拒否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理由는 北韓側에서 그런 親睦團體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도 觀察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方法은 離散家族이라든가 訪問의 目的別로 親睦團體를 組織할 수도 있다.

이때 目的別로 나누면 비슷한 職業끼리 自然히 모이게 될 것이다.

6. 離散家族의 國內活用 方案

統一이 非現實的인 것 같던 독일이 急速度로 統一되고 韓國政府가 蘇聯과 外交正常化의 길을 밟게 되면 南北頂上會談도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一般人들은 모든 것이 期待以上으로 잘 되어가는 줄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北韓이 루마니아처럼 崩壞되고 東獨처럼 吸收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칫하면 大混亂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對價를 支拂하게 된다.

混亂이 일어나는 理由는 一般國民이 北韓에 대한 知識도 없고 마음의 準備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東西獨처럼 오래동안 交流를 해서 서로를 아는 것도 아니고 最近에 「統一展望臺」나 「南北의 窓」 같은 TV 프로그램이 始作되었지만 이런 것을 다 알아도 不足한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이런 問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理念的인 大混亂」이 생길 可能性이 있다. 一般國民에게 北韓問題에 대한 弘報가 空白狀態이므로 독일과 比較하면 하늘과 땅의 差異가 있다.

이 豫想되는 混亂의 對備策으로 適當한 方法이 離散家族의 活用方案이다. 東西獨이 交流를 하던 時節 東獨 出入管理國에 가보면 東獨訪問 비자를 얻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西獨人들의 大部分이 離散家族으로 보이는 隱退한 老人들 이었다. 그 가운데도 女性이 훨씬 많았는데 아마 女子가 男子보다 더 오래 살고 人情도 많은 두가지 理由라고 筆者는 分析한다.

統一을 가장 願하고 南北이 평화로운 關係를 가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이들은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離散家族이다. 어느정도 危險이 있더라

도 이들의 왕래를 獎勵하면 北韓은 漸進的으로 開放될 것이고 統一을 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準備가 必要한 南韓도 時間을 벌게 된다.

北韓이 體制의 不安을 느끼지 않고 천천히 開放하고 南韓도 統一을 準備하는 過程中에 突發事故에 대비해서라도 軍備縮少는 어렵고 國內治安도 해야 하고 教育費, 交通難 解消費 등 많은 돈이 必要하다. 勞使紛糾가 일어나기도 하며 經濟도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統一費用은 南韓의 負擔으로 된다.

南韓은 西獨보다, 北韓은 東獨보다 몇배 더 못살기에 양쪽 모두 經濟成長을 더 하면서 理想的으로 통하도록 努力하면 安保와 統一의 理論的인 矛盾을 克復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이 離散家族은 限을 풀면서 統一韓國에 큰 貢獻을 할 수 있다.

東西獨의 예를 보더라도 東獨人의 西獨訪問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南北韓의 境遇도 北韓側으로부터의 큰 期待를 걸 수는 없을 것 같다.

離散家族 海外僑胞들 가운데 隱退後 北韓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北韓을 開放시킨다거나 海外의 資本이 民族資本으로 吸收된다는 觀點에서 肯定的으로 보아야 한다. 韓國政府에서 間接的으로 도와 平壤에 離散家族 隱退村이 세워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조금하게 서둘지 말고 計劃만 잘 세우면 南北韓의 混亂을 막으면서 樂觀的인 結論에 到達하게 될 것이다.

7. 結 論

7. 7宣言 以後부터 로스엔젤레스의 올림픽가와 버몬트가 사이에 있는 고려서적센터에서 主體思想에 대한 懇談會가 定期的으로 開催되고 있다. 南北韓間에 理念的으로 統一을 향한 아무런 準備가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非難만 할 일은 아니다.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西歐社會에서 2-3백년이나 걸려 이룩한 成長을 30여년만에 이룩한 우리 社會는 내세울 만한 價値觀이 없어 物質萬能으로 흐르고 있다. 社會가 변하면 價値觀도 변해야 한다.

간단한 예이지만 大學以上 大學院까지 공부시켜 놓아 남자 만큼 아는 것이 많아진 女性들에게 아직도 살림만 살아주기를 바란다거나 살림하고 남는 時間에 社會活動 하라는 식의 요구는 먹혀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男女平等이나 女性解放 政策이 부러워서 온갖 소리를 다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筆者가 平素의 研究經歷과 訪北經驗으로 많은 목소리들을 가라앉히는데 貢獻을 하였는데 뒤에서는 辱을 하거나 피하려는 사람이 있기까지 한것을 안다.

만약 北韓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本人의 이야기와 論文의 結論을 政府나 統一院 代辦人과 같이 취급했을 在野의 女性運動家들이 分明히 있다. 이제는 眞實을 알기 위해서도 在野나 “주사파” 學生들 보다도 政府나 輿圖에서 北韓女性の 생활에 대한 研究를 하고 있다.

政府가 北韓의 實相을 꾸밈없이 國民들에게 보여주려고 努力하면 解決할 수 있는 問題가 많을 것이다. 一般國民들이 北韓을 제대로 把握한다면 時代錯誤的인 主體思想을 追從할 集團들이 줄어들 것이고 事實 最近 2年

동안 北韓 情報를 公開한 以後 “주사파”가 退潮하였다.

南北韓 關係改善 및 民族共同體 形成에 이바지하는 唯一한 方法은 北韓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일이고 이렇게 할 때 統一에 대한 國民輿論의 合意點은 저절로 形成될 것이다.

만약 南韓住民들이 北韓訪問을 始作하여 社會混亂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低所得層들이 北韓勢力에 同調할지도 모른다는 憂慮를 하겠지만 가난하다고 모두 그렇지는 않다. 政府가 眞實하고 솔직한 政策을 펴서 國民들에게 弘報한다면 TV나 라디오를 안 가진 階層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共產主義 同調勢力이 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더 많고 가진자나 指導層의 人士·公務員이 오히려 最惡의 境遇 機會主義者가 될 소지는 充分히 있는 것이다.

政策擔當者들부터 統一을 하겠다는 意志가 첫째로 必要한 것이고 두번째는 金日成·金正日을 비롯한 北韓同胞를 미워하기 전에 事實 그대로 實體부터 認定해야 한다. 南韓의 政府나 國民이 金正日 權力繼承이나 存在의 正統性등을 들먹이기 때문에 北韓은 地下組織이나 反體制·反政府 人士들에게 接近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40여년 동안이나 現代의 어느 나라보다도 高度의 安定性(?)을 維持하면서 統治해 왔고 國民들로부터 懽모와 尊敬의 對像이 되어온 政權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相對로 對北韓政策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反問할 必要가 있다.

루마니아처럼 되기를 바라서도 안되겠고 되지도 않겠지만 그 나라는 統一해야 할 반쪽이 없었던 것이다. 東西獨이 부럽지만 우리에게는 그 만한 能力이 없다. 東西獨 關係에서 우리는 獨逸과 類似點 보다 다른점이

더 많다는 教訓을 얻고 있다.

자세한 理由는 여기서 다 밝힐 수 없겠으나 2차대전의 장본인으로서 勝戰國들의 複雜한 理解가 얽혀 分斷된 독일은 周圍의 勢力 때문에 統一의 可能性이 稀薄하였다. 반면 南北의 統一은 周圍 國家들에게 威脅은 커녕 最近에 와서 緊張緩和나 國際情勢의 安定을 준다는 理由로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段階까지 發展되었다. 부끄럽게도 南北韓 內部事情이 外部的 要因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南北의 指導者가 合意를 보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 이전 段階인 南韓 內部の 保守와 急進勢力이 合意를 보지못할 뿐만 아니라 政府가 이들 意見을 統合시킬 餘裕도 없는 것 같다.

동구가 變化되고 蘇聯마저 危機에 처해 解決策을 摸索中인 現時點에서 北韓은 特殊體制 때문에 解決策을 講究하지도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그런데 安保와 關係없는 在美僑胞들의 北韓訪問마저 疑懼心을 갖는 것은 問題가 있다.

政府는 訪問者들을 利用하여 情報를 얻고 北韓은 그들 때문에 開放이 되어갈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民族統一中央協議會 「北韓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울, 1990)
2. 統一院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指針」 (서울, 1989)
3.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美州僑胞들의 統一意識構造」 (LA, 1988)
4.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29집 2호, 1989)
5.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28집 2호, 1988)
6. 아시아 태평양 平和政策研究所編 「朝鮮統一論」 (도서출판 세계, 1985
이승렬 옮김)
7. 양은식 編著 「분단을 넘어서」 (LA, 1984)
8. 루이제린저著, 박영식譯 「외인이 본 조선」 (삼학사, 1983)
9. 齊藤 正直編 「朝鮮訪問記」 (와이시에테, 1982)
10. Fred J. Carrier 「North Korean Journey」 (International Publisher Co.
1975)

面 談 者

1. 김기성(前LA 韓人會長, 現 僑胞問題研究所 所長)
2. 김운하(미국 「신한민보」 社長)
3. 김춘자(전금여행사 代表)
4. 박敬允(금강산 國際貿易開發會社 대의총사장, 高麗銀行總裁)
5. 선우학원(미조리 센트럴대학 教授)
6. 조재길(미국 「Street JOURNAL」 社長)
7. 양은식(祖國統一協議會 議長)
8. 李光德(고려문화센터 代表)
9. Mitchel Bang(로스엔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이사)
10. Sera Kim(LA 예지원 院長)
11. Joseph Roh(한미은행 理事)

* 面談者 選定에는 2차례 訪北하였고 꾸준히 北韓學者들을 만나고 있으며 親韓僑胞들에게도 認定을 받는 曹瑛煥教授께서 수고 했는데 曹교수의 Contact는 中國에 있는 Paul Chang, 캐나다의 전총림씨 까지 包含하고 있음.

海外僑胞의 北韓訪問 實際과 教訓

1991年 2月 日 印刷

1991年 2月 日 發行

發行處：統 一 政 策 室

印刷所：陽 東 文 化 社
